# “신종 코로나 확산, 기도로 이겨내자”

## 달라이라마, ‘따라보살 진언’ 불자들에 당부

**관세음보살 화신 ‘따라보살’**
**질병 예방 · 마음 평화 진언**
**달라이라마 대중접견 보류**
**티베트 사원도 전면 폐쇄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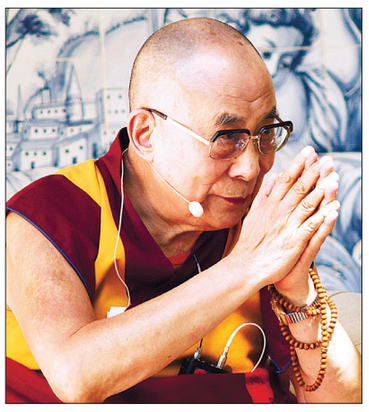
김민재 · 박정현 객원기자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티베트불교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불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했다. 1월 28일 ‘더 타임즈 오브 인디아’, ‘글로벌 부디스트도어’ 등의 매체들은 달라이라마 권고한 ‘따라보살’ 진언 내용을 보도했다.

지난 28일 오전, 인도 다람살라에서 베트남 불자들을 접견한 달라이라마는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전염병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달라이라마는 “오늘 이 자리에 산스크리트어로 된 부처님의 말씀과 팔리어로 된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이 함께 모였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최근 발생한 전염병이 사라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달라이라마는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서서히 소멸하기 위해, 관세음보살의 화신인 ‘따라보살’의 진언 독송을 권했다. 티베트불교에서 따라보살은 관세음보살의 화신이자 33응신 가운데 ‘다라존관음’으로도 알려져 있다.

달라이라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더 이상의 진행을 막기 위해 수많은 중국인 불자들이 조언을 구해왔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불교를 믿어온 국가”라며 이번 기도를 권하는 계기를 밝혔다. 이어서 “불자들 가운데 평소 진언을 염송하는 관습이 있는 이들에게 ‘따라보살’의 진언을 권한다”고 말하며, 직접 “옴 따레 뚜따레 뚜레 쏘하(Om Tare Tuttare Ture Soha)”라고 진언을 먼저 염송했다.


따라보살 진언을 염송하는 달라이라마. 사진출처=인디안 익스프레스


티베트불교를 대표하는 성지 포탈라궁전. 포탈라궁전을 비롯해 티베트 내 모든 사원과 관광지가 폐쇄됐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달라이라마는 “따라보살의 진언은 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며, 확산을 완화하고 질병을 앓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분들과 전 세계에서 이 새로운 전염병을 두려워하는 분들,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도 권고가 공지되자 인도에 소재한 각 티베트 불교사찰 역시 병을 소멸하기 위한 따라보살 기도를 입재했으며, 해당 소식들은 SNS 등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다.

달라이라마 사무국은 이번 접견을 마지막으로 당분간 대중 접견을 받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달라이라마의 수석비서인 텐진 타클라는 “달라이라마와 일반대중의 접견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받지 않는다. 이는 고령의 달라이라마를 위한 예방 조치”라고 밝혔다. 달라이라마는 지금까지 매주 세 차례 일반 대중과의 접견을 가져왔다.

한편 ‘청정 지역’으로 여겨지는 티베트 자치구마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망이 뚫리며, 티베트 내 모든 불교사원과 관광지들이 전면 폐쇄됐다. 티베트는 그동안 중국 본토 내에서 유일하게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곳이다.

BBC 등 복수의 외신 매체는 1월 29일 티베트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발생, 중국 전역 31개 지역에 전부 확산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티베트의 모든 불교 사원과 인기 관광지가 전부 폐쇄됐다. 폐쇄가 결정된 곳에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집이자 언덕 꼭대기에 위치해 1000개의 방을 보유한 ‘포탈라 궁전’을 비롯해, 티베트를 최초로 통일했던 손챈감포왕이 7세기 중엽에 지은 ‘조캉 사원’ 등이 포함됐다. 달라이라마의 하안거 공간인 ‘노블링카 궁전’도 마찬가지로 폐쇄됐다. 불교 사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음식점, 카페 등도 대부분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전해진다.

티베트의 한 시민은 ‘라디오 프리 아시아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시의 거리가 거의 비어있다”며 “대부분의 찻집과 식당이 문을 닫았다. 군중이 모여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또한 1월 27일 이후 티베트에 도착한 모든 관광객들은 14일간 지정된 호텔에 머무르며 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

현재(7일 기준)까지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는 635명이다. 확진자도 3만830명으로 급증하는 양상이다. 사망자 경우 전날보다 69명 늘어났고, 확진자는 2447명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 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다음달 15~16일 옌칭(延慶)에서 개최될 예정이던 국제스키연맹 가오산 스키 월드컵 대회 등 각종 행사를 줄줄이 취소하는 상황이다. 모든 여행사의 국내 및 국제 여행 상품 판매도 강제 중단됐다.

# ‘유대인 불교도’ 어떻게 탄생했나

## 유대인연구소 시거로우 박사
## 상반된 두 종교의 접점 분석
## “일종의 대체사상으로 각광”

유일신을 숭배하는 유대교와 유일신을 부정하는 불교. 이 두 종교를 조화하는 불교도들이 생겨나 화제다. 지난 1월 31일 미국의 불교전문매체 ‘트리사이클’은 전통적으로 유대교를 믿어온 젊은 유대인들이 불교로 개종하면서 생겨난 ‘유대인 불교도’들에 대한 연구결과를 집중 조명했다.

대표적인 유대인 불자인 에밀리 시거로우 박사는 지난해 11월 유대계 불자들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미국 유대인 연구소에서 현대 유대인사회를 연구중인 시거로우 박사는 자신의 논문에서 ‘유대인 불교도(JewBu)’라는 신조어를 사용했다.

논문은 “30대 이하의 젊은 유대인들이 불교도로 개종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밝히면서 “젊은 유대인들에게 불교는 현대적인 흐름에 참여하며 과학적 가치와 다원주의, 평등이라는 이상과 양립할 수 있는 종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유대인 불교도의 상징. 유대교의 별과 불교의 법륜이 겹쳐진 형상이다. 사진출처=트리사이클

‘트리사이클’은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유대인 불교도들의 특징은 유대인의 생활전통과 불교의 교리를 적절히 융합해 생활한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유대인 불교도들이 받아들이는 불교는 “불교의 원음이 아닌, 유대인들의 입맛에 맞게 개조와 번안된 불교”라고 전했다.

이런 관점에서 시거로우 박사는 “유대인 불교도들은 완전한 유대교도도, 완전한 불교도라고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거로우 박사는 유대인 불교도를 유대문화를 유지한 채 불교를 수행하는 부류, 단순히 영적인 풍요를 위해 불교에 의지하는 부류, 유대문화와 불교문화에 구분을 두지 않는 부류의 세 가지로 분류했다.

‘트리사이클’은 박사의 분류를 소개하면서 “불교를 수행하는 유대인들은 불교를 위해 유대교를 떠났지만 대부분 유대교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전했다. 또 유대교로 회귀한 이들이 “불교의 명상법을 유대교에서 잊힌 영지주의의 부활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실제 시거로우 박사도 자신의 연구에서 “정결과 부정함을 중요시하는 유대교 문화에서 불교의 명상을 수행하는 많은 유대인 명상가들은 자신이 하는 명상이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은지에 큰 관심을 두었다”고 밝혔다.

시거로우 박사는 자신의 연구에서 유대교와 불교의 중요한 공통점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주어진 문화 환경에 적응하는 것”으로 꼽았다. 불교가 세계종교로 발전하면서 각 나라의 문화에 맞춰진 것처럼, 유대인들 또한 디아스포라를 통해 주변 사회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했다. 더욱이 유대인 공동체가 사회적으로는 주류 유럽계 미국인 공동체 사회와 불균형적인 것도 주요한 요인으로 시거로우 박사는 분석했다.

초기불교가 인도사회에서 크샤트리아와 상인 계급에서 크게 유행한 것처럼, 같은 유일신임에도 불균형을 유지하던 유대인과 미국인 공동체 사회 사이에서의 새로운 대체 사상으로 각광 받은 것이다. 또 시거로우 박사는 불교와 유대교가 서로 만난 20세기는 사회 문화적으로 개방적이었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 산티아고 순례길, 불교문화단지 조성

## 스페인 카세레스-네팔 룸비니 양해각서 체결

스페인 카세레스에 거대 불교문화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역사적인 불교의 발상지인 네팔 룸비니 도시와의 협력으로 ‘세계 평화의 상징’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2월 4일(현지시간)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 보도에 따르면, 카세레스와 룸비니 시장들은 지난달 초 룸비니에서 만나 두 도시를 쌍둥이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지난달 22일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열린 ‘2020 마드리드 FITUR 국제 관광무역 박람회’에서 공표된 해당 프로젝트는 약 20~30헥타르(ha) 규모의 부지에 정원, 법당, 부도탑, 도서관, 석가모니 부처 유물, 최대 20명 스님을 수용 가능한 숙박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단지 중심에는 40m 높이의 불상이 세워질 예정이다.

약 2750만 달러 비용이 투입되며, 자금은 사단법인 룸비니가든재단(Lumbini Garden Foundation)이 지원한다.

룸비니 시장인 만모한 찬드리(Manmohan Chaudhary)는 프로젝트 목표에 대해 “전 세계에 걸쳐 부처의 메시지인 평화와 철학을 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카세레스의 시장 루이스 살라야 줄리안(Luis Salaya Julián)은 해당 단지가 아시아 관광객들에게 훌륭한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불교단지를 통해 더 많은 아시아 여행객들이 스페인과 카세레스에 대해 알게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마드리드에서 남동쪽으로 300㎞ 떨어진 카세레스는 기원전 25년에 형성된 도시다. 인구 약 10만 명에 달하며, 구시가지는 중세 성곽도시로서 198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가톨릭 교인들 사이에서는 산티아고 순례길 여정의 중심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선치료 명상 과학 센타
제6차크라 젠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전 11시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젠에너지체(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를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수 행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전수함. (아나빠나사띠숫타)
■ 부처님말씀 (아나빠나사띠숫타) : 1. 들숨날숨에 대한 알아차림을 통한 삼매을 닦고 많이 공부지으면 큰 결실이 있고 큰 이익이 있다.
2. 들숨날숨을 통한 알아차림에 대한 삼매을 닦으면 – 몸도 피로하지 않았고 눈도 피로하지 않았고 나의 마음도 번뇌로부터 해탈하였다.
3. 호흡의 전과정(길고, 짧고, 거칠고, 미세한)을 온몸으로 경험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쉬리라.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젠에너지체 – 행주좌와어묵동정)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젠에너지 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젠에너지 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붓다의 호흡법 연구소(소장:처명)
라이브 방송
페이스북 | 매주 수요일 밤 10-11시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대학장 / 대학원장 서 무 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통신대학 | 기 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나란다삼장불교대학 ..... 강원 교육
학 장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 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20년 1월 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강 | 2020년 3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
교수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 박사님 외

불교예술대학 ..... 범패 · 작법무
교 수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시련, 대령, 관욕의식
원서교부 | 2020년 1월 부터
수업시간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6시
개강 | 2020년 3월 3일 화요일 오후 3시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 www.kumgangnet.com | Tel 02)969-2410, 4981 Fax 02)964-2433